

## 사도행전에 사용된 σέβω와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 번역

정창욱\*

### 1. 문제 제기

신약성경에 ‘경배하다/예배하다’를 의미하는 σέβω 동사가 10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8번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된다.<sup>1)</sup> 또한 이 동사와 여러 가지로 관련이 깊은 동사인 φοβέω<sup>2)</sup> (두려워하다/경외하다)는 신약 전체의 빈도수 95번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14번 쓰여서 그 빈도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인 누가복음에 24번 등장하여 신약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다.<sup>3)</sup> 무엇보다도 이 두 동사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서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동사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σέβω 동사와 φοβέω 동사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

\* Vrije Universiteit in Amsterdam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cwjung21@gmail.com.

- 1) σέβω 동사의 형태는 예배하다. 비록 능동태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신약에서는 중간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원래 일반 동사였으나 코이네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디포넌트 동사화되어 가는 중에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디포넌트 동사가 아니므로, BDAG를 따라서 σέβομαι가 아니라 σέβω를 원형으로 제시한다.
- 2) φοβέω 동사의 능동태도 σέβω와 마찬가지로 성경 헬라어 문헌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중간태/수동태로만 쓰인다. BDAG는 오로지 수동태로만 쓰인다고 설명하는데, 현재나 미완료에서 중간태와 수동태의 형태가 동일하므로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간태/수동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때때로 수동태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과거로 쓰이면 ‘무서워졌다’ (became frightened, BDAG, 1060)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간태형으로 자주 사용되어서 마치 디포넌트 동사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해서 디포넌트는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수동태가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이 동사의 현재 중간태 분사형이 주로 사용됨으로 일종의 디포넌트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사 역시 공식적으로는 디포넌트 동사가 아니므로 BDAG를 따라서 원형을 φοβέω로 사용한다.
- 3) 이 동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각각 18번, 12번 쓰인다. 이 동사의 명사형인 φόβος도 누가복음에서 7번 쓰여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며, 사도행전에도 5번 등장하여 두 번째로 많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1번만 쓰이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빈도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명사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95-217을 보라.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역개정』에서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sigma\epsilon\beta\omega/\phi\omicron\beta\epsilon\omega$  동사의 분사형의 의미에 대해 학문적 논의가 있어 왔다.<sup>4)</sup>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기술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어서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였다고 본다.<sup>5)</sup>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는 했으나, 유대교의 율법적 요구의 장애물 때문에 개종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sup>6)</sup>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하면서 다른 학자들은 이 표현은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경건한 사람들’ 혹은 일반적 의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전달해 주며, 특정 계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 둘 가운데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sigma\epsilon\beta\omega$ 와  $\phi\omicron\beta\epsilon\omega$ , 이 두 동사가 분사형으로 사

- 
- 4) 구체적으로 관사 +  $\phi\omicron\beta\epsilon\omega/\sigma\epsilon\beta\omega$ 의 분사형 +  $\tau\omicron\nu\ \theta\epsilon\acute{o}\nu$  구문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사가 없기도 하고 목적어인 ‘하나님’이 없기도 한 까닭에, 포괄적으로 본문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복수 분사형만 있는 것처럼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10장의 고넬료의 경우에는 단수가 등장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옳다고 할 수 없다.
- 5) 이러한 견해를 표방하는 대표적 학자로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였던 폴커 지겟트(Folker Siegert)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사도행전의  $\sigma\epsilon\beta\omega$  동사가 분사형으로 쓰이면 거의 언제나 회당에 속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기술적 용어라고 이해한다. 특별히 13:50, 17:4의 경우에도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문, ‘Gottesfurchtige und Sympathisante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4 (1973), 109-164를 보라.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들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 6)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었다. 하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식법을 준수하는 것이었다. 어른이 되어 할례를 받는 것은 상당한 고통끼리였고, 게다가 이방인으로서 신체에 구별되는 표식을 갖는 것이어서 이방인들이 꺼려했다. 다른 하나는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이었다. 유대교 규례에 따라서 음식을 장만해야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자신들의 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다른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문제가 생겼다. 결국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유대교의 할례법과 음식법에 관해서는 각각 다음의 백과사전을 참조하라: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eds., *Encyclopedia Judaica 2nd ed.*, vol. 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07), 730-735; vol. 5, 650-659.
- 7) 대표적으로 윌콕스(Max Wilcox)는  $\sigma\epsilon\beta\acute{o}\mu\epsilon\nu\omicron/\phi\omicron\beta\acute{o}\mu\epsilon\nu\omicron\ \tau\omicron\nu\ \theta\epsilon\acute{o}\nu$ 은 어떤 특정 계층을 지칭하기 위한 기술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의 용례를 모두 살펴보고 구약적 배경까지 살펴본 후에, 윌콕스는 특별히  $\phi\omicron\beta\acute{o}\mu\epsilon\nu\omicron\ \tau\omicron\nu\ \theta\epsilon\acute{o}\nu$ 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든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결론 내린다. Max Wilcox, “The ‘God-fearers’ in Acts- A Reconsideration”, *JSNT* 13 (1981), 102-122.

도행전에서 쓰일 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며, 구별하여 번역하고 있는가?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것을 각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결국, 다음 세 가지로 논점을 요약할 수 있다: 1) 사도행전에서  $\sigma\beta\omega/\phi\omicron\beta\epsilon\omega$  동사의 분사형은 특정 그룹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 표현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인가? 2)  $\sigma\beta\omega/\phi\omicron\beta\epsilon\omega$  사이에 어휘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3)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에 근거하여 이 구문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처음의 두 논점과 관련하여 한글/영어/독일어 번역 성경들은 어떤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논란이 되는 단어나 개념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성경 번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가 하는 좀 더 보편적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phi\omicron\beta\epsilon\omega/\sigma\beta\omega$  동사의 분사형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우선 살펴본 후에, 두 동사의 의미를 조사하고, 그 단어들이 분사형으로 사도행전에서 쓰일 때 어떠한 차별점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두 동사들의 분사형을 포함한 구문이 각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번역되고 있는지 밝혀보고, 각 구절에 대한 성경 번역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성경 번역이 학문적 논의와 연결하여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2. 이 용어에 대한 견해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동사들의 분사형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인 기술적 용어라고 이해해 왔다.<sup>8)</sup> 그런데 1981년에 크라벨(A. T. Kraabel)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런 전통적 견해를 통렬하게 논박한다.<sup>9)</sup> 그는 옛 로마 제국의 영토에 존재했던 회당들에서 발견된 비문들에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통적 견해는 폐기되어야 마땅하

8) 대표적으로 G. F. Moore가 이런 입장을 드러낸다. G. F. Moore, *Judai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Peabody: Hendrickson, 1997), 323-326.

9) A. T. Kraabel, "The Disappearance of the 'God-Fearers'", *Numen* 28:2 (1981), 113-26. 기존의 견해를 논박하는 첫 번째 시도는 크라벨 이전에 이미 있었다. 레이크(Kirsopp Lake)는 1932년에 이미 그런 기술적 용어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Kirsopp Lake,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v.5: Additional Notes to the Commentary* (London: Macmillan, 1932), 74-96. J. S. Jensen, "God-Fearers or Sympathizers - A Special Social Group?", *Temenos* 12 (1992), 200에서 재인용. 하지만 체계적으로 고고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논박한 사람은 크라벨이었다.

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용어는 누가가 신학을 논하기 위해 문학적 장치로 만들어낸 개념이다. 크라벨은 자신의 주장이 온전히 고고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신약 시대와 비슷한 시기의 여러 지역의 회당의 비문 어디에도 그런 용어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다. 그의 신학적 전제는 사도행전이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작품이거나 이야기 형태로 쓰여진 신학이라는 주장 속에 잘 담겨 있다.<sup>10)</sup> 그렇다보니 문학적 구성을 위해 이 개념이 필요하여 누가가 만들어내서 사도행전에 도입한 것뿐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님 경외자들’(God-fearers)이라는 특정 그룹의 존재가 필요했던 이유는 기독교가 구약적 근거없이 이방 종교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 용어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 효과를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sup>11)</sup> 다시 말해 그런 특정 그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크라벨은 펼치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sup>12)</sup> 고고학적 발견에 근거하여 펼치는 주장이기에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던 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크라벨의 주장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우선 누가가 이 용어를 단순히 문학적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냈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사실 고고학적 증거라고 제시한 그의 주장도 단편적인 측면일 뿐이다. 크라벨의 논리대로 하자면 누가는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라는 개념도 문학적 효과를 위해 사용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개종자는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sup>13)</sup> 문학적 장치로 썼다고 해서 반드시 누가가 창조해 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결국, 그 당시에 그런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 곧 유대교에 대해 호의적이고 일정부분 율법도 지켰으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의식을 행하지도 않으며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10) A. T. Kraabel, “The Disappearance of The ‘God-Fearers’”, 113-118.

11) Ibid., 120.

12) 그의 주장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학자들과 비판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13) Dietrich-Alex Koch, “The God-fearers between Facts and Fiction: Two Theosebeis-Inscriptions from Aphrodisias and Their Bearing for the New Testament”, *Studia Theologica* 60 (2006), 80.

14) 그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세례와 비슷한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다. S.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1992), 370-371.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로 논증이 가능하다. 핀(Thomas Finn)이 설득력 있게 입증한 대로 사도행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술된 유베날(Juvenal)이나 요세푸스(Flavious Josephus) 혹은 필로(Julious Philo)의 저작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과 실행에 끌리면서도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다.<sup>15)</sup> 크라벨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비문, 곧 로마 시대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된 비문의 내용은 사실 해석상으로 애매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최소한 누가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으며, 어쩌면 그런 용어가 원래 누가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크라벨 이후의 대다수 주석가들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용어가 특정 계층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런 기술적인 용어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 내어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을 위한 호칭으로 그 용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up>17)</sup> 이런 연구 결과의 반영이 번역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sup>18)</sup> 이런 연구의 흐름은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 3. σέβω/φοβέω의 사전적 의미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26번 쓰이는 σέβω는 구약 히브리

15) Thomas Finn, "The God-Fearers Reconsidered", *CBQ* 47 (1985), 75-84.

16)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렛(C. K. Barrett)의 주장은 균형이 잡혀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계층이 모든 회당에 존재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는 주장한다. 결국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런 용어가 누가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특정한 계 쓰인 것은 부정한다. C. K. Barrett, *Acts 1-14*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1994), 499-501.

17) 사실 주석가들의 견해도 두 가지로 갈린다. 여전히 전통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서 God-fearers (하나님 경외자들)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특정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적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두 그룹의 학자들의 입장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18)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주석들을 참조하라. L. T.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182; J. B. Polhill, *Acts* (Nashville: Broadman, 1992), 252; D. L. Bock,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386; 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326-327;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vol.1 (London; New York: T. & T. Clark, 1994), 500-501.

어에서 381번 등장하는 히브리어  $\text{סָרַר}$ 의 번역어였다.<sup>19)</sup>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fear)를 의미했으나 ‘경배하다/예배하다’(worship)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sup>20)</sup> 26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두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한가? 우선 BDAG는  $\sigma\acute{\epsilon}\beta\omega$ 를 이렇게 설명한다: 1. 예배하다, 경배하다. 2. 존경을 표하다/존경하다.<sup>22)</sup> 이상에서 보듯이 BDAG에 따르면 이 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경배하다/예배하다’이며 부차적으로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하나님을 두려워/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없다. TDNT의 경우에는 이 동사의 의미를 호머(Homeros)의 『오딧세이』에서 기본적으로 ‘위축되어 뒤로 물러서다’였다고 적시하며, 이 동사의 어간이 되는  $\sigma\acute{\epsilon}\beta$ -가 언제나 경이/경외(awe)를 의미한다고 기술한다. 그런 경의는 큰 실수나 무언가 고귀하고 숭고한 것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개념은 호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sup>23)</sup> 고전 헬라어와 헬라시대 헬라어에서는 ‘공경하는 경이’(reverent awe)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호머에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이 아니라 자세나 태도를 표현했으나 고전/헬라시대 헬라어에서는 서서히 행동을 의미하기 시작하여서 ‘경배하다/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대로 히브리어  $\text{סָרַר}$ 의 번역어로 70인역에 자주 등장하며, 신약에서도 구약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동시에 ‘숭배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sup>24)</sup>

그런데 영어/독일어/한글성경은 때때로  $\sigma\acute{\epsilon}\beta\omega$  동사의 분사형이 사도행전

19) 블레이즈(Blaze)에 따르면,  $\sigma\acute{\epsilon}\beta\omega$ 가  $\text{סָרַר}$ 의 번역어로 이사야 66:14에서 단 한번 사용되고 있다. TDNT VII, 171.

20) 예를 들면, 여호수아 22:25에서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 성경 번역자들에 따라 ‘fear’나 ‘worship’으로 번역된다. 흥미롭게도 70인역의 영어 번역본 LXE, LXA는 여호수아 22:25의 이 단어를 모두 ‘worship’으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sigma\acute{\epsilon}\beta\omega$ 가 우선적으로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하는 영어 성경들은 ‘fear’와 ‘worship’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것은 여호수아 4:24에서도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LXE와 LXA는 ‘worship’으로 이해했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fear’로 이해한다. 이것은 문맥상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21)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는 70인역에 모두 463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본이 없는 구약의 책들에도 이 단어가 쓰이기 때문이다.

22) BDAG, 917-918. BDAG는 영어로 다음과 같이 1) 2)를 표기한다: 1) to express in gestures, rites, or ceremonies one’s allegiance or devotion to deity, *worship*; 2) to have a reverent attitude toward human beings, *show reverence/respect for*.

23) TDNT VII, 169.

24) BDAG, 1060-1061.

에 등장할 때 이것도 φοβέω와 마찬가지로 ‘경외하는’으로 번역하며, 반대로 φοβέω의 분사형을 ‘공경하는/경건한’으로 이해한다.<sup>25)</sup> 결국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에 근거하여 주어진 문맥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을 확대하여 번역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당성을 갖는 것일까?<sup>26)</sup> 이제 사도행전의 용례를 연구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 4. 사도행전의 두 동사의 용례

각 번역 성경의 σέβω/φοβέω의 분사형에 대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σέβω 동사의 분사형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13:43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13장에 φοβέω 동사의 분사형이 σέβω 동사의 분사형과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13장의 σέβω 동사의 용례들을 우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용례들을 연구한 후에, φοβέω 동사의 용례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sup>27)</sup>

### 4.1. σέβω 동사의 용례 연구

#### 4.1.1. 사도행전 13:43

사도행전 13:43의 표현 τῶν σεβομένων προσηλύτων은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누가는 σέβω 동사의 분사형을 ‘개종자’를 의미하는 ‘προσηλύτος’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것은 완전히 유대교인이 된 경건한 개종자들을 뜻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누가의 표현은 약간은 어리둥절한 의미를 전달한다. 사실 마샬(I. H. Marshall) 같은 학자는 ‘개종자’를 뜻하는 이 단어에 집중하여 σέβω의 의미는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한다.<sup>28)</sup> 이 구절에 따라

25) 헬라어 분사의 한글번역과 관련해서는, 유은결, “국역성서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10을 보라.

26) 이 문제는 이 동사가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말해 이렇게 묘사된 사람들은 유대교에 호의적이어서 회당에 참석을 하고는 있으나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논의와 관련하여 학자들의 주장은 둘로 나뉜다. 한 쪽은 그런 설명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주장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앞의 설명을 참조하라.

27) 이 동사들이 등장하는 구절들을 차례대로 전부 살펴기보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구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8) I. H. Marshall, *The Acts of the Apostles* (Leicester: Inter-Varsity, 1980), 311.

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었다. 이 어구를 많은 영어 성경은 devote proselytes (CJB, MIT, NKJ) 아니면 devote converts (to Judaism) (ESV, NIV, NJB, NLT, NRS, RSV)등으로 번역한다. 흥미롭게도 NAS와 NAU, 또한 NET는 God-fearing proselytes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s)과 연관이 있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sup>29)</sup> 왜냐하면 개종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온전한 개종자를 지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개역』/『개역개정』/『표준』) 혹은 “경건한 개종자들”(『새번역』),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공동』/『공동개정』) 등으로 번역한다. 세 가지 표현 모두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헬라어 προσήλυτος를 이해하며 σέβω의 분사형은 그것을 수식해 주는 의미로 본다. 독일어 성경 가운데 바시스비벨(BasisBibel)은 이것을 풀어서 번역한다: die zum Judentum übergetreten waren und an den Gott Israels glaubten (유대교로 개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EIN과 ZUR는 간결하게 fromme Proselyten (경건한 개종자들), ELB와 ELO는 anbetenden Proselyten(경배하는/경건한 개종자들), L45는 gottesfürchtige Judengenossen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친구들)로 번역한다.<sup>30)</sup>

어떻든 의문은 왜 누가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σέβω의 분사형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수식한 것일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폭스-잭슨(Foakes-Jackson)은 이 단어사이에 쉼표가 있어서 각기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개종자들’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sup>31)</sup>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유대인들과 어떤 의미에서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들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개종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προσήλυτος의 이해에 따라서 이 형용사의 의미가 좌우되며, 따라서 이 명사의 의미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προσήλυτος’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sup>32)</sup>

29) NAB는 ‘worshiper who were converts to Judaism’으로 번역한다. 50절의 다양한 번역은 아래에서 제시된다.

30) 독일어 성경들의 약자 서명과 출판연도는 다음과 같다: EIN - Einheitsuebersetzung (1980); ELB - Revidierte Elberfelder (1993); ELO - Unrevidierte Elberfelder (1905); L43 - Luther (1545); ZUR - Zuercher Bibel (2007, 2008).

31) F. J. Foakes-Jackson,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Harper, 1931), 120.

32)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위의 예를 빼고 세 번 등장한다: 마 23:15, 행 2:11; 6:5. 이 헬라어 단어에서 ‘개종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proselyte가 유래하였다. 헬라어 철자를 거의 그대로 영어 철자화했음을 알 수 있다.

70인역에 85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유대인과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처럼 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sup>33)</sup>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조차도 혈통상의 유대인과는 구별되었다(출 12:48, 49 등).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단어는 유대인과 거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대교 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켰다(행 2:11; 6:5; 13:43). 하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온전히 개종한 사람들만을 가리키지는 않았다.<sup>34)</sup>

따라서 ‘개종’의 명확한 의미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러 까닭에, 비록  $\sigma\beta\omicron\mu\epsilon\nu\omega\nu$   $\pi\rho\omicron\sigma\eta\lambda\upsilon\tau\omega\nu$ 은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자들’, 곧 ‘God-fearers’를 지칭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개종자’가 완전한 개종자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기에 성경 번역을 하면서는 ‘경건한 개종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버만(J. A. Overman)이 주장한 대로, 누가는 어쩌면 이 용어를 70인역에서 차용해 왔을 수 있다.<sup>35)</sup> 만일 그렇다면 이 단어는 70인역에서처럼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와 관련있던 사람을 뜻할 수 있다.<sup>36)</sup> 따라서 반드시 완전한 개종자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회당에 있던 유대인과 특정 계층의 하나님 경외자들을 지칭할 수도 있다.

33) 맥나이트(S. McKnight)는 유대교 개종자를 4가지 부류로 구분하면서, 네 부류의 계층이 1세기에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구약에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고 함께 산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S. McKnight, “Proselytism and Godfearers”, C. A. Evans & S. E. Porter,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846.

34) BDAG, 880. 사도행전에 세 번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한번 마 23:15에만 등장한다.

35) 오버만은 이렇게 말한다: “사도행전에서  $\pi\rho\omicron\sigma\eta\lambda\upsilon\tau\omicron\varsigma$ 는 회당과 유대인들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나  $\text{Iουδ}\alpha\iota\omicron\varsigma$ 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이었다”. J. A. Overman, “The God-Fearers: Some Neglected Features”, *JSNT* 32 (1988), 20. 오버만은 70인역에 77번 이 헬라어 명사가 쓰인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은 판본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 잘못 세어서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다.

36)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70인역 의존과 그 문체 모방은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특별히 누가복음 1, 2장의 유아기 기사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Chang Wook Jung,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를 참조하라.

## 4.1.2. 사도행전 13:50

앞의 예가 등장하는 13장의 50절에서 다시 한 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번역을 43절의 번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τὰς σεβομένας γυναῖκας τὰς εὐσεβέμονας. 많은 성경은 50절에서 σεβῶ의 분사형을 43절과 유사하게, 그러면서도 역본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나게 번역한다: devote (NAS, NAU, NAB, NJB, ESV, RSV, NKJ, NRS); God-fearing (NET, MIT, NET, NIV). 흥미로운 현상이 각 영어 성경의 43절과 50절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드러난다. 두 구절에서 이 동사의 분사형의 의미는 같으나 43절은 ‘개종자’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영어 성경은 devote로 번역하고 50절에서는 여성들이기에 일반적 의미로 ‘하나님을 공경/두려워하는’이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God-fearing이라고 번역한 듯하다. 그런데 43절에서 ‘devote proselytes’로 번역했던 CJB는 과감하게 ‘the women “God-fearers”’라고 번역해 버린다. 이런 현상은 CJB의 번역자들이 50절의 경우에는 43절과는 달리 이 단어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독일어 성경의 경우에, EIN과 ZUR는 gottesfürchtigen (하나님을 경외하는) ELB/ELO는 anbetenden (경배하는), L45는 andächtig (경건한, 신실한)으로 번역되었다. EIN과 ZUR의 번역은 43절과 달리 ‘하나님 경외’의 의미를 표현해 준다.

43절과 비교해 볼 때, 한글 성경은 “경건한 귀부인들”(『개역』/『개역개정』/『표준』/『새번역』) 혹은 “이방 출신으로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귀부인들”로 번역한다(『공동』/『공동개정』). 특정 계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개념이 한글 성경 중에서는 어디에도 없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떤 특정 그룹으로 이해했다면 50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부인들’로 해야 자연스럽다. 물론, 위의 43절이 걸림돌이 되는데, 그 구절에서 σεβῶ는 특정 계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개종자’의 의미가 맞다면 43절의 경우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게다가 50절의 문맥상이 귀부인들은 이방인으로서 회당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역개정』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고 번역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4.1.3. 사도행전 16:14; 17:4, 17; 18:7

이제부터 나머지 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σεβομένη τὸν θεόν이라는 어구가 등장하는 사도행전 16:14에서 이방 사람이었던 루디아(Lydia)를 묘사하면서 누가는 σέβω 동사의 분사형을 사용한다. 많은 영어 성경은 이 어구를 worshiper of God/who worshiped God으로 번역한다(ESV, GNV, KJV, NAB, NIV). 하지만 NET는 God-fearing으로, CJB는 God-fearer로 번역한다. 독일어 EIN과 ZUR는 Gottesfürchtige (하나님 경외자), ELB는 die Gott anbetete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L45는 gottestfürchtig (Weib)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인)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한글 성경은 모두 ‘하나님/하느님을 공경하는’으로 번역한다. 비록 회당은 빌립보에 없었지만 루디아를 포함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을 볼 때 유대교에 상당히 연관이 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17:4의 경우에 τῶν τε σεβομένων Ἑλλήνων πλῆθος πολὺ, (또한 경건한/경외하는 헬라인들의 많은 무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많은 영어 성경은 분사 σεβομένων을 God-fearing, NJB는 God-fearing people, 다른 많은 성경은 devote로 이해한다. 여기서도 CJB는 ‘God-fearers’로 번역한다. 반면에 한글 성경은 예외없이 ‘경건한’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같은 번역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맥락은 회당의 구성원들이 그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회당의 구성원이었던 이 헬라인들은 회당에 참여했으나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적어도 『개역개정』은 아래에서 살펴볼 사도행전 18:7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도행전 17:17에 사용된 τοῖς σεβομένοις는 다양하게 번역된다: devote persons (ESV, KJV, RSV, NRS), God-fearing Gentiles (NAS, NAU, NET, NLT), God-fearing Greeks (NIV), Gentile worshipers (NKJ), devote persons(KJV), God-fearers (CJB, MIT) the godfearing (NJB). 한글 성경 역시 다양하게 번역한다: “경건한 사람들”(『개역』/『개역개정』), “이방사람 예배자들”(『표준』/『새번역』),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방인 유대 교도”(『공동』/『공동개정』). 독일어 성경도 다양하다 — Anbetern(경배자들/예배자들: ELB), Frommen(경건한 사람들: MNT) Gottesfürchtigen (하나님 경외자들: EIN, ZUR). 이 구절에서는 회당에 참석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해주는 데, 문맥상으로 볼 때 회당에 참석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과 독일어 성경의 표현들은 최소한 어떤 뉘앙스

를 담고 있다.<sup>37)</sup> 이런 번역은 번역자들이 그런 부류의 이방인들의 존재를 인정했음을 반영해 준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런 이해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 『개역』/『개역개정』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회당에 참석했으나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던 이 두 성경이 여기서서는 단순히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했다는 점이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 번역은 시정되어야 한다. 『공동』과 『공동개정』의 경우에는 ‘유다 교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개종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런 번역은 『개역개정』의 경우보다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2005년에 번역한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로 번역한다.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8:7에서 *σεβομένου τὸν θεόν*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많은 영어 성경은 worshiper of God/who worshiped God으로 번역하는데, MIT와 CJB는 God-fearer, NJB는 that belonged to a worshiper of God으로 이해한다. 독일어 성경의 경우는 Gottesfürchtigen (하나님 경외자: EIN/ELB/ZUR), Gott Verehrenden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MNT) 등으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도 번역이 다양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개역』) “하나님을 경외<sup>38)</sup>하는”(『개역개정』). “이방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표준』/『새번역』).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방인”(『공동』/『공동개정』).<sup>39)</sup> 앞서 지적한 대로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전의 예들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관성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CJB는 일관성 있게 *σέβω*의 분사형을 ‘God-fearer’로 번역한다. 단 하나의 예외는 바로 앞서 다룬 13장 43절로서 거기서는 ‘개종자’(proselyte)를 수식하기 위해 쓰였기에 ‘devote’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도 기계적인 일관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칙을 따르는 일관성이 필요하며, 결정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일관성을 쉽게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37) NIV는 한결을 더 나아가 이 사건이 아테네에서 있었기에 ‘God-fearing Greeks’(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번역한다.

38) ‘경외’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10:2, 22, 35; 13:16, 26; 18:7, 13 등에서 『개역개정』이 채택한다.

39) 행 18:13-worship. 이 구절은 내용이 평이하여 모든 성경들이 ‘예배하다/경배하다’로 번역한다. 한글 성경은 ‘경외하다’(『개역개정』), ‘공경하다’(『개역』/『표준』/『새번역』), ‘예배하다’(『공동』/『공동개정』)로 이해하는데, 사실 ‘경외하다’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개역개정』은 수정이 필요하다.

행 19:27-worship. 한글은 『개역』/『개역개정』은 “위하는”, 『표준』/『새번역』은 “숭배”, 『공동』/『공동개정』은 “숭상”으로 번역한다. 이 용례는 누가가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4.2. φοβέω 동사의 용례 연구

φοβέω 동사는 사도행전에서 14번 등장하지만, 분사형으로 쓰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이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10장에서 3번 등장하는데 세 번 모두 고넬료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13장에서 두 번 더 등장한다. 이 다섯 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한다.

### 4.2.1. 사도행전 10:2, 22, 35

고넬료를 묘사하는 사도행전 10:2에서 εὐσεβῆς καὶ φοβούμενος τὸν θεόν이라는 어구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런데 표현방식만 약간 다르지 다수의 영어 성경은 ESV의 다음 번역과 유사하다: a devout man who feared God (ESV, NKJ, NAS, NAU, NRS, RSV). 또 다른 많은 영어 성경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어는 ‘devote’로 보고 두 번째는 ‘God-fearing’이나(NAB, NIV, NET, NJB) 이것을 풀어서 ‘one who feared God’으로 이해한다(KJV, NKJ). 특이한 경우를 제시해 보자면 CJB를 들 수 있는데, σέβω의 분사형과 마찬가지로 φοβέω의 분사형을 따옴표를 써서 ‘God-fear’라고 별도 표기하여 고넬료를 특정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제시한다. 이 구절에서 ‘경건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에 적절한 구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독일어 성경은 ‘fromm und gottesfürchtig’(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라고 설명한다(EIN, ZUR, SCL, ELB).<sup>40)</sup> 그런데 *BasisBibel*은 이것을 “ein frommer Mann.... an den Gott Israels glaubte”(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이해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만이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의역이라 볼 수 있다.

한글 성경은 앞의 단어는 모두 ‘경건한’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두 번째 단어는 각각 ‘경외하다’ (『개역』/『개역개정』/『성경』), ‘두려워하다’ (『표준』/『새번역』), ‘공경하다’ (『공동』/『공동개정』)로 번역한다.

흥미롭게도 10장 2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고넬료를 묘사하고 있는 10장 22절의 경우에는(δίκαιος καὶ φοβούμενος τὸν θεόν), 영어 성경은 φοβέω의 분사형을 위해서 대부분 ‘God-fearing’을 채택한다. 이것은 2절과 22절의 분사형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고 비슷한 형용사를 가지고 표현했음을 보여 준다.<sup>41)</sup>

40) 루터 성경은 앞의 단어를 ‘fromm’ 대신 ‘gottselig’(하나님께 귀의한-옛 독일어)라고 해 놓았다.

10장 35절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ὁ φοβούμενος αὐτὸν καὶ ἐργαζόμενος δικαιοσύνην.<sup>42)</sup>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풀어서 ‘man/men/anybody who fear(s) Him’으로 이해하며 독일어 성경도 모두 ‘wer ihn fürchtet’로 번역한다. 심지어 σέβω와 φοβέω의 분사형을 거의 언제나 ‘God-fearer’로 번역하는 CJB조차도 다른 영어 성경과 유사한 번역을 채택한다: whoever fears him. 한글 성경은 『개역』/『개역개정』, 『표준』/『새번역』은 2절과 22절의 번역과 동일하게 하는 반면에 『공동』/『공동개정』은 앞의 두 구절의 ‘공경하는’ 대신 ‘두려워하는’으로 바꾼다. 나머지 네 개의 한글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공동』/『공동개정』은 일관성이 없는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특정 계층에 속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기보다는 이 구절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은 일관성 있게 φοβέω의 분사형을 ‘하느님을 경외하는’으로 예외없이 번역한다.

10장의 φοβέω의 분사형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룬 특정 그룹에 고넬료가 속한 사람이었음을 이 표현이 보여주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결정해야 한다.<sup>43)</sup> 고넬료는 피터슨(D. G. Peterson)의 주장대로 특정한 계층에 속했던 ‘God-fearer’였을 수 있다.<sup>44)</sup> 이렇게 해석할 때 사도

41) 2절에서 a devote man who feared God으로 번역한 성경들 중 몇 개는 이 구절에서 다른 표현인 ‘God-fearing’을 받아들인다(CSB, ESV, NRS, RSV). 독일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아예 2절과 동일한 단어를 채택해서 같은 의미를 명백히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표현의 사용을 통하여 번역성경의 문학적 측면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Meaning-driven Translation을 추구하는 번역은 동일한 헬라어 구문도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구별된 특이점을 가진 표현은 가능하면 동일한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2) 이 어구에서 αὐτὸν은 τὸν θεόν과 같아서 ‘하나님’을 가리킨다.

43) 앞서 설명한대로 주석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비석에 적힌 유대교 회당을 위한 헌금자명단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정한 그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다른 주석가들은 오히려 그 비문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유대교에 호의적이었으나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44) D. G. Peterson,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09), 326-327. 그는 2절에서는 분명하게 고넬료를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로 지칭하는 반면에 22절과 35절은 약간은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2절의 그의 해석에 근거하여 22절과 35절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본문의 의미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특별히 35절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회당에 속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식하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던 사람에게 구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후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방식과도 잘 조화를 이룬다.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때에 유대인과 더불어 회당에 참석하던 이방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행전의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기독교 개종자인 고넬료가 유대 회당에 속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고넬료를 단순히 ‘경건한’(2절) 또는 ‘의로운’(22절)으로 표현해도 될 것을 구태여 φοβέω의 분사형을 써서 부가적으로 묘사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누가가 선택한 장치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계층에 고넬료가 속했음을 표현하기 위한 의도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10장 2절과 22절의 φοβέω의 분사형은 고넬료가 특정 계층에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35절의 경우에는 고넬료를 특정해서 묘사하지 않기에 앞의 두 구절과는 약간은 다른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 4.2.2. 사도행전 13:16, 26

사도행전 13:16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οἱ φοβούμενοι τὸν θεόν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때 이 헬라어 어구를 영어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한다: Gentiles who worship God (NIV), Gentiles who fear God (NET), you who fear God (CSB, ESV, NAU, NKJ), God-fearing Gentiles(NLT), God-fearing men (MIT). 아주 흥미롭게도 CJB와 NJB는 각각 ‘God-fearers’와 ‘fearers of God’으로 이해한다. 몇 개의 독일어 성경도 영어 성경처럼 관계 대명사를 써서 번역했으며, EIN과 ZUR는 Gottesfürchtigen(하나님 경외자들)로 이해한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개역』/『개역개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표준』/『새번역』) 혹은 “하느님을 공경하는 여러분”(『공동』/『공동개정』)으로 번역한다.<sup>45)</sup>

사도행전 13:26의 경우에도 영어 성경은 16절과 거의 동일하게 번역한다. 다만 16절에서 God-fearing이라고 번역했던 MIT같은 경우에 God-fearers라고 이해하여 특별한 계층을 가리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일어 성경 역시 16절과 동일한 표현을 써서 번역해 낸다. 한글 성경의 경우는, 『개역』/『개역개정』/『표준』/『새번역』 경우에는 16절과 같으나, 『공동』과 『공동개정』은 16절과는 다르게 이방인을 넣어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이방인(형제)”으로 번역한다. 이 성경들이 16절과는 다르게 왜 ‘이방인’이라는 말을 넣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으나, 16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표

45) 독일어 기초번역(BasisBibel)은 이 부분에서 die ihr an den Gott Israels glaubt라고 해석해 놓았으며, 동일한 표현을 26절에서도 사용한다.

현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기에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할 필요성이 있다.<sup>46)</sup> 바람직하게도 『성경』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으로 번역해 놓았다.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13장의 두 개의 예는 회당이라는 맥락 속에서 회당의 구성원으로서 유대인과 구별되는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대한 표현이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

## 5. 결론

이상의 연구에 기초해서  $\sigma\beta\omega$ 와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의 분사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초기 기독교 시대를 전후로 해서 유대교 회당에는 특정 계층의 이방인이 존재했으며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누가가  $\sigma\beta\omega/\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의 분사형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용어가 누가 이전에 존재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 누가가 특별한 의미로 이 분사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두 동사의 분사형이 등장하는 각 예문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회당의 맥락에서 유대인과 구별되지만 회당 활동에 참여하던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3. 그런데 두 동사 사이에는 사전적 의미에 있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따라서 두 동사의 분사형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영어 성경 중 CJB처럼 두 동사의 분사형 모두 일관성 있게 ‘God-fearers’, 한글로 ‘하나님 경외자’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두 동사의 의미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sigma\beta\omega$ 의 분사형은 ‘하나님 예배자/경배자’(‘God-worshiper’)로,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의 분사형은 ‘하나님 경외자’(‘God-fearer’)로 구별하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난외주나 난하주에 ‘하나

46) 누가복음 1:50에서도  $\phi\omicron\beta\acute{\epsilon}\omega$ 의 분사형이 하나님을 뜻하는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 τοῖς φοβου μένοις αὐτόν.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경외자들’을 암시하고자 했을 수 있다.

님을 예배/경배하던 이방인(들)('Gentile(s) who worshiped God') 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Gentile(s) who feared God') 이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채택한 원칙을 따라서 일관성 있게 번역어를 선택해야 하며 근거없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sup>47)</sup>

4. 고넬료의 사건에서 보듯이 φοβέω의 분사형이 그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데, 이것은 이 분사형이 특별한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이해는 사도행전의 이방인 전도를 향한 흐름과 잘 조화를 이룬다: 복음은 우선적으로 회당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서 한글 성경의 다음 번역 작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향상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Keywords)

σέβω 동사, φοβέω 동사, 하나님 경외자, 하나님 예배자, 사도행전, 학문적 해석과 번역.

σέβω, φοβέω, God-fearer, God-worshiper, Acts, Scholarly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5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18일)

47) 각 동사의 원래 의미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2005년의 『성경』의 번역은 바람직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두 동사의 분사형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누가가 일부러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그런 점을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유은결, “국역성서의 헬리어 분사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10.
- 정창욱, “누가복음-사도행전의 φόβος(‘두려움’/‘무서움’)에 대한 이해와 번역”, 『성경원문연구』 35 (2014), 195-217.
- Barrett, C. K., *The Acts of the Apostles 1-14*,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1994.
- Bock, D. L., *Acts*, Grand Rapids: Baker, 2007.
- Finn, Thomas, “The God-Fearers Reconsidered”, *CBQ* 47, (1985), 75-84.
- Foakes-Jackson, F. J.,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Harper, 1931.
- Jensen, J. S., “God-Fearers or Sympathizers - A Special Social Group?”, *Temenos* 12 (1992), 199-207.
- Johnson, L. T., *The Acts of the Apostle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 Jung, Chang Wook,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Lukan Infancy Narrative*, London;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4.
- Kistemaker, S. J.,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Baker, 1992.
- Koch, Dietrich-Alex, “The God-fearers between Facts and Fiction: Two Theosebeis-Inscriptions from Aphrodisias and Their Bearing for the New Testament”, *Studia Theologica* 60 (2006), 62-90.
- Kraabel, A. T., “The Disappearance of the ‘God-Fearers’”, *Numen* 28:2 (1981), 113-126.
- Lake, Kirsopp,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v.5: Additional Notes to the Commentary*, London: Macmillan (1932), 74-96.
- Marshall, I. H., *The Acts of the Apostles*, Leicester: Inter-Varsity, 1980.
- McKnight, S., “Proselytism and Godfearers”, C. A. Evans and S. E. Porter, eds.,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0.
-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eds., *Encyclopedia Judaica*, 2nd ed., vol. 4,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07.
- Michael Berenbaum and Fred Skolnik eds., *Encyclopedia Judaica*, 2nd ed., vol. 5, Detroit: Macmillan Reference, 2007.
- Moore, G. F., *Judaism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of the Christian Era*, Peabody: Hendrickson, 1997.
- Overmann, J. A., “The God-Fearers: Some Neglected Features”, *JSNT* 32 (1988), 17-26.
- Peterson, D. G., *Th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Eerdmans, 2009.

Polhill, J. B., *Acts*, Nashville: Broadman, 1992.

Siebert, Folker, “Gottesfurchtige und Sympathisante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4 (1973), 109-164.

Wilcox, Max, “The God-fearers’ in Acts - A Reconsideration”, *JSNT* 13 (1981), 102-122.

<Abstract>

**Translation of the Participial Forms of the Verbs,  
σέβω (sebo) and φοβέω (fobeo)**

Chang 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The usage of the participial forms of the verbs σέβω and φοβέω in Acts has generated much discussion. The issue centers on whether they point to the Gentiles who belong to a specific class; more precisely whether they signify the presence of Gentiles who attended the synagogue and participated in its activities, but still did not convert to Judaism by being circumcised and baptized. They are rendered as ‘God-fearers’ by some Bible translations. Recently, most scholars concur that there existed such people in the synagogue of the first century, though it is less probable that the term had been used for them before the composition of Acts.

An investigation into the instances in Acts demonstrates that the scholarly consensus on the usage of the two verbs is appropriate. How is then a translator to express the idea reflected by scholarly agreement? This study looks at English/German/Koran versions concerning the use of the participial forms of the two verbs. Most verses in Acts where the participial forms of σέβω and φοβέω occur are examined; various versions of the Bible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to grasp how each version translates Greek participial forms into target languages.

The study suggests the most desirable way to deliver the connotation of the forms. The participial forms of the verbs σέβω and φοβέω may be translated as ‘God-worshippers’ and ‘God-fearer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y should be consistently translated based upon solid lexical principles.